**교제와 나눔**

**41-06호 2024년 2월 11일**

**\*\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\*\***

**ㆍ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주일이며, 3월 나라주일입니다.**

**ㆍ재의 수요일:** 2월 14일(수) , **사순절 묵상자료집 애용해 주세요.**

**ㆍ예결산 공동의회:**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

**ㆍ온라인 주보 활성화: ‘**주보플러스’ 어플을 깔아주세요.

**ㆍ친교시간 관련 협력요청:** 1)오병이어 저금통 애용, 2)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

**ㆍ매일성경 3,4월호가 도착했습니다.**

**ㆍ라합2나라모임:** 2월 14일(수) 10시 30분 호텔 KO

**ㆍ라합3나라모임:** 2월 15일(목) 9시 장혜진 님 가정

**ㆍ2024 유럽코스타:** 2/27(화)~3/1(금) ‘한민족과 하나님 나라’

**ㆍ출석:** 염구섭/염선아

**ㆍ생일축하:** 정수연, 민채우, 서민규, 장종순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일/막1:35-45 | 월/막2:1-12 | 화/막2:13-28 | 수/막3:1-19 |
| 목/막3:20-35 | 금/막4:1-12 | 토/막4:13-25 | 일/막4:26-34  |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성경 300독 대행진: 216독 (김한진 1독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2월 11일** | **2월 18일** | **2월 25일** | **3월 3일** |
| **예배기도** | 박희영 | 김종권 | 김호정 | 한연재 |
| **안내위원** |  예배부 |
| **헌금위원** | 박희영, 오경민 | 민경웅, 백수정 |
| **애찬위원** | 밥상 일곱 | 밥상 여덟 | 밥상 아홉 | 밥상 하나 |



 **“소망 중에 즐거워하라”**(롬 12:12)

주일예배 12:00 Teestube 믿음방

14:00 Mutterhauskirche
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
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

청 년 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믿음방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 누구든 어디서나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이동훈 목사** HP. 01525-2367 629

**교육/** **박승은 목사** HP. 0157-3845 5550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 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 **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 **주 일 예 배**

 **)**

**4.Advent)**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송/Eingangslied ……….….…..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.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…………..……….......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인도자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...…. 교독문 47번 .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...…….......... 42장 ……….………….…..….….....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.....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박희영 집사 |
| 찬양/Chor 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 겟세마네 동산에서 ………….………….. | 찬양대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….… 마가복음 1:35-45 ….…….…..….………. | 인도자 |
| 설교/Predigt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**그게 다가 아니다** ………………..….…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306장 …………….….………..…..... | 다함께 |
| 봉헌/Kollekte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교제/Bekanntmachung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 | 다함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.………..…….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|  |  |
| **※ 표는 일어섭니다.** |  |
|  |  |
| **\*\*교회 구좌\*\***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 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구좌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구좌 |  |

**◈ 마가복음 개요 ◈**

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진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. 분량이 가장 적으면서도 예수님의 행동을 주로 기록하였기에, 쉽게 읽히고 그 주제도 명확합니다. 예수께서 행동하시는 모습은 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-이적들입니다. 그래서 마가복음은 ‘능력의 복음’입니다. 한편 마가복음은 ‘종의 복음’입니다.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십니다.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행동양식이며, 또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. 마가복음 총 16장 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면,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.

마가복음의 예수는 인간적 감정과 정서로부터 멀어진 천상의 존재가 아닙니다. 모든 점에서 예수는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(히2:17). 그는 노하며(3:5, 10:14), 성급하며(7:18, 8:17-21), 놀라며(6:6),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(8:12). 베드로를 꾸짖으며(8:33),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며(9:19), 무화과나무를 향해 비참한 운명을 선고하며(11:14, 21), 때로 고뇌와 번민에 사로잡힙니다(14:33-34). 그러나 그는 또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습니다.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며(1:22), 치유하며(1:31, 41-42, 3:10), 귀신을 내쫓습니다(1:25-27, 3:11-12). 그러나 교사, 치료자, 또는 기적 수행자 그 이상입니다. 그는 메시아요,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입니다.

이 복음서 자체가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. “마가”라는 이름은, 바울과 바나바의 동료였던 예루살렘의 요한 마가가 그 저자라고 하는, 2세기 초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(행12:12, 25, 13:4-5, 15:37-39, 골4:10, 딤후4:11). 벧전5:13의 “내 아들 마가”도 요한 마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대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되었고, 전통에 따르면 쓰여진 장소는 로마입니다. 마가복음이 예수의 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수난을 강조하는 것은, 네로 황제(주후 54-68년 통치) 치하의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겪은 것과 같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의식하며 쓰여졌음을 시사합니다.